

예배순서

*경배와 찬양	입례 / 시편 139편 / 감사함으로 주가 일하시네 /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다같이
대표기도		조운
*성경봉독	롬 6:10-14	김동은
말씀	제자의 삶 - "죄와 싸우는 삶"	김상범 목사
응답찬양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다같이
*봉헌		다같이
*봉헌기도		김상범 목사
광고 및 환영		김태동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다같이
*축도		김상범 목사

헌금안내

예배중 헌금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 준비하신 헌금은 예배실 입구의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venmo(@akpc-offering)로 헌금하실 수 있습니다.

*표시에서 일어서 주세요.

응답찬양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우리 죄 위해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형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릴 새롭게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제자의 삶 - "죄와 싸우는 삶 (롬 6:10-14)

10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었으나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12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3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은 '명화 테러'라는 용어를 들어보셨나요? 보통 유럽에 기반을 둔 기후단체나 환경단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하여 유럽의 많은 박물관에 전시된 명화에 페인트나 수프 등을 뿌리는 행위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환경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이런 명화는 아무 소용도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이런 일은 먼나라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보 1호 송례문은 2008년에 채종기 씨라는 방화범에 의해 완전히 불에 타 전소되었었습니다. 그의 범행동기는 자기 땅을 국가가 매입 보상하는 과정에 불만이 있었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유였습니다. 송례문 복원에는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인력과 재원이 투입되었습니다. 복구기간 5년 3개월간 엄청난 예산과 자원을 투입하여 2013년이 되어서야 복원된 송례문이 일반에 공개되었습니다. 문화재청은 송례문의 가치는 그대로 보존되었다고 강조했는데, 여러분은 이에 동의하시는지요?

'도대체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이런 짓을 한단 말인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 모두는 이런 행동을 한 조상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명품, 창조세계를 죄로 망친 아담과 하와 말입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 창조세계는 하나님께서 6번이나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감탄하실 만큼 완벽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후 땅은 저주를 받았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궁핍과 수고와 인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바로 아담이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사건은 그저 한 번 실수했다가 돌아올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 창조세계가 타락하고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온 것은 불가역적 (irreversible) 사건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망쳐진 창조세계를 지워버리시고 다시 창조하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훨씬 더 어려운 과정인 '복원'을 택하셨습니다. 이 복원과정에 핵심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의 유전자 속에는 '죄성'이 뿌리깊게 박혀 그 모든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으로 치달게 되었습니다 (창6:5). 성경은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인류가 죄악에 빠졌음을 반복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성경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상실한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롬1:28-32).

이처럼 전 인류는 죄에 빠졌는데, 문제는 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죄값이 우리가 치를 수도 없는 것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다름 아닌, 우리에게 단 하나씩만 주어진 '생명'입니다 (롬3:23). 따라서, 모든 인류는 자신의 죄값을 치르고 나면 더 이상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여기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원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지고 대신 죄값을 치른다는 것" 어찌 보면 참으로 무모해 보이기까지 하고, 심지어 자기 파괴적이기까지한 그 결정을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대한 사랑때문에 정하셨고, 예수님은 그 계획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소망이 없는 인류에게 다시 살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한마디로 죄를 이기신 것, 사망을 이기신 것입니다.

이렇듯 죄의 문제는 사망과 생명이 결부된 문제이다 보니 성경에서는 항상 피가 튀기고, 치열한 전투적 이미지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즉, 죄의 본질은 사망이기에 항상 처절합니다. 죄사함은 그저 아름답고 고상한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죄에 대해서 '목숨 걸고' 싸워야 하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죄와 싸우는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려 죽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죽기까지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죄에는 스스로 관대하고 죄사함의 은혜만 구하고 있지는 않지요? Dallas Willard 교수는 이런 부류의 기독교인에게 '뱀파이어 크리스천'이란 다소 원색적인 표현까지 사용하며 경고하였습니다. 죄와 싸우지는 않고 보혈의 은혜만 찾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산책

죄사함 받은 후 다시 짓는 죄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짓는 죄이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짓는 죄입니다. 연약하여 짓는 죄에 대해서는 용서와 권면을 하지만,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죄사함이 없고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히10:26-27). 은혜가 내 책임을 면해주지 않습니다. 자기 변명이 언제나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이란 내가 자꾸만 넘어지는 죄를 과감히 끊어 내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유혹에 안입어가면 이기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를 이겨냈을 때만 맛볼 수 있는 엄청난 영적 기쁨과 만족감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함'입니다. 본문에서 사도바울도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기라"고 권면합니다. 의지를 사용해서 그렇게 살라는 말입니다.

비록 그 결심이 오래가지 못하더라도, 며칠 내에 또 결심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죄와의 싸움을 포기해선 안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 해야 할 첫 번째 순종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다시금 죄에 대한 경각심을 세우고, 죄와 싸우는 결단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묵상 질문

- 어떤 교회는 죄와 회개의 메시지를 '억압'으로 생각하여 의도적으로 회피합니다. 여러분은 죄와 회개의 메시지를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만큼 소중히 여기시나요?
- 예수님을 믿어 죄짓음을 받은 후에도 반복적으로 짓는 죄에 대한 평소의 내 생각이 어떠했나요?
-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죄와 싸우겠다는 결단의 마음이나 용기가 생긴 부분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성경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다면?
(교회 웹사이트 댓글란에 올리셔도 좋습니다)



파송찬양

깊어진 삶을 주께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에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AKPC 청년부 예배에 찾아 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 안내 및 협조부탁

청년부 예배는 오후 1시 찬양이 시작되면서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가급적 5분전까지 착석하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오시는 분들과 조금 늦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뒷좌석 가운데쪽은 가급적
자리를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해와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새가족 교육 수료

강한빛 권준혁 배윤지 이다함 이중원 정혜원 조혜연 최민우 허주안 (9명)

팀원 모집

라이트팀 - 청년부 예배 전/후 교회 라이드를 도와주실분들 (문의: 김윤환)

찬양팀 - 여 싱어, 건반, 일렉 기타, 드럼 (문의: 전승엽, 전하영)

예배팀 - 음향/자막 팀원 모집 (문의: 박규상)

미디어팀 - 주보 편집에 관심 있으신 분 (문의: 안혜성)

2023 찬양의 밤

0/27(금) 7pm, 교회. 자세한 장소는 추후 결정

Just Show Up 가을학기 모임

매주 화 저녁 8시 (중), 9/19부 진행중

주1회 성경을 꾸준히 읽기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김상범 목사님, 조학영 자매에게 연락바랍니다.

일대일 인도자반

이번주 화요일 10/3부터 진행됩니다.

시간: 저녁 7시 (6:30부터 다과 제공)

장소: 교회 시니어룸 (식당 옆방)

2023년 AKPC 장학생 선발

대상: 일반대학/대학원생 또는 신학대학/대학원생

접수 마감/10월 22일(주일)

접수 및 문의: 교회 홈페이지(akpc.org)/장학위원회(akpc.scholarship@gmail.com)

지정현금으로 장학사이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

브라질 교회 초청 Arise 찬양 기도회

10월 6일(금) 오후 8시, 본당

말씀 : Ozzi 목사 / 특별찬양 : 브라질 교회 찬양팀

토요무릎기도회는 쉽니다.

생명의 삶 10월호

권당 5불에 판매



예배팀 신청 QR

예배 / 모임

주일청년예배

주일 1pm

금요기도모임

금 7pm

청년목장

주중 또는 예배후

Good Morning 말씀산책

월-금 6:30am

토요무릎기도회

토 6:30am

AKPC PSALM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에스겔 37:5

THUS SAITH
THE LORD
JEHOVAH
UNTO THESE
BONES:
BEHOLD,
I WILL CAUSE
BREATH
TO ENTER
INTO YOU,
AND YE
SHALL LIVE.

청년부를 섬기는 분들

신앙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담당목사

김상범

cptksb3@gmail.com

지도장로

김종환

jybella@utexas.edu

청년부에 첫방문이거나 라이드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로 연락주세요.

새가족팀장

박샤론

Sp9316@gmail.com

라이드팀장

김윤환

michaelsdogani@gmail.com

양육과정안내

새가족교육

방문자 및 새신자들을 위한 2주간 새신자교육이 있습니다.
더 알아가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대일 제자양육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대상으로 일대일 제자양육 교육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 기본영성과 큐티를 생활화 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어스틴한인장로교회 청년부

12311 NATURES BEND

AUSTIN, TX, 78753

TEL_ 512 454 1727

FAX_ 512 454 6888

PSALM@AKPC.ORG

WWW.AKPC.ORG

FACEBOOK | AKPC 청년부

INSTAGRAM | @AKPC_PSALM